

특별기획

무주안성 낙화놀이 '멋져요'

전북 무형문화재 지정 반딧불축제 통해 소개

남대천 물빛과 어우러져 흘날리는 불꽃연출 일품



무주안성낙화놀이(줄을 타고 떨어지는 불꽃들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가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돼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뽐낼 수 있게 됐다.

낙화놀이는 음력 정월 대보름과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 백중 등에 즐기던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로, 숯가루와 소금, 마른 쉼 등을 넣어 만든 "낙화봉"을 길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타들어 가는 불꽃과 소리의 조화가 아름답다.

그동안 낙화놀이를 전승해온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에서는 안성낙화놀이 보존회(대표 박찬훈)를 통해 낙화놀이를 복원, 지역문화로 발전시켜왔으며 2007년부터는 두문마을에서, 또 반딧불축제(2008)를 통해 대내외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반딧불축제에서 펼쳐지는 낙화놀이는 남대천에 어리는 불빛

과 바람에 흘날리는 불꽃, 그리고 나룻배를 타고 흐르는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져 놓쳐서는 안 되는 볼거리로 인정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태권도문화엑스포 행사, 2011년 8월에는 새만금이리를 썬머페스티벌에 초청돼 호응을 얻었으며, 2014년부터는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서도 낙화놀이 특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을 낙화놀이 보존회 박찬훈 대표는 "안성낙화놀이는 복원 이후 새롭게 전승 환경을 개척하고 확장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민속놀이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며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는 낙화놀이가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더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낙화놀이 보존회는 2009년 말 낙화놀이에 사용하는 낙화봉 디자인을, 2010년 4월에는 제조방법을 특허 등록한 바 있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김상선 과장은 "두문마을 낙화놀이는 서당을 중심으로 마을주민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던 서당풍속"이라며 "두문 서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마을축제가 주민들의 노력으로 전복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가 된 만큼 후손대대로 이어지며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썩, 인삼·특용작물 명품화 사업 '머리 맞대'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심포지엄 개최

진안홍삼연구소(고근택 소장)는 진안홍삼축제 기간인 지난 12~13일 국내에서 자생하는 인삼을 비롯한 특용작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관, 산업의 현주소 진단을 위해 '기능성 특용작물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안 산악초 전시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진안홍삼연구소 진안홍삼 명품화 사업단과 농촌진흥청 인삼특작기능성 연구회와 공동 주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농·특산 특용작물관련 학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가공업체 및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영섭 과장은

인삼 특작 기능성 연구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최근 웰빙사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현황과 천연물 산업의 위상, 개발중인 기능성 식의약품 소개 등을 소개했다.

진안홍삼연구소 최경민 본부장은 연구소에 대한 현황과 7년 동안 연구한 진안홍삼과 특용작물의 과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진안홍삼 산업화와 지역경쟁력을 위한 진안홍삼(향토) 명품화 사업을 설명했다.

국립원예특작원 이대영 연구사는 메타볼로믹스를 활용한 인삼특작의 생체대사연구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인체에 유용한 성분의 기능적 효과와 역

할에 대해 입증기회를 마련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및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기능성 특용작물들에 대해 신선한 전문지식함양과 입증된 특용작물의 우수한 효과효과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메타볼로믹스 :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체내에서 소화되어 우리 몸에 필요한 유용한 물질로 변화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거나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게 된다. 이 때 어떤 물질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로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궁금하게 된다. 이러한 대사과정에서 포함되는 모든 물질들에 대한 연구를 뜻한다.

특히 이항로 군수와의 간담회에서는 지난 8월 외공초 17명의 학생이 일본 아이정을 방문하여 양국의 어린이들이 소중히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하고 내년에는 아이정 학생들이 진안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6개 국내 자매도시에서는 부산 북구 유호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대표단이 방문하여 축제장에 마련된 각종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전시 부스를 둘러보는 등 축제를 즐기면서 흥성을 일으킨 한 제품의 다양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축제 개막 기념식에 참여한 대표단은 홍삼축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아프리카대륙 대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참석자들의 면면에 감사하면서 진안홍삼축제가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내외 자매도시와 함께한 '진안 홍삼축제'

日 아이정·부산 북구청 등 역대 최대 대표단 축하 방문

일본 아이정과 부산 북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서울 강동, 도봉, 은평구 등 진안군의 대표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단 40여명은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진안홍삼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진안군을 방문했다.

히다가 카즈노리 교육장을 비롯한 일본 아이정 대표단은 지난 11일 입국하여 2박 3일의 일정으로 에코에듀센터, 용담호, 마이산 등 주요 관광단지과 축제현장을 견학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섬진강 물길 따라 동서가 하나 되다

진안-하동주민 간 교류협력

섬진강권 지역 주민 간 교류협력 기념식이 13일 오후 3시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욱) 주최로 진안군 백운면사무소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한광욱 위원장을 비롯해 이항로 진안군수, 백운면과 하동군

하동읍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섬진강을 매개로한 동서 지역주민 교류행사로 지난 7월말 섬진강 최하구지역인 하동읍에 섬진강 발원지인 백운면 두원마을 주민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념식 전 하동읍 주민들의 마이산과 홍삼연구소 방문으로 교류지

역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기념식에는 '홍삼주 담그기' 시연과 국민통합정책 소개, 주민과의 대화, 기념식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광욱 위원장은 "한사람이 백 걸음을 가는 것보다 백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백인일보(百人一步)의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영호남 장애인 지도자들 무주로

적상면 캠핑리조트서

지도자 교류 연찬회

영호남 장애인 지도자 교류 연찬회가 13일 무주군 적상면 캠핑리조트 빨강치마에서 시작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4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장애인 지도자들이 만나 지역 간 동향을 공유하고 장애인 복지 사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열린 개회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경북협회 김영식 회장과 전북협회 김형근 회장, 그리고 각 지회 회장단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지회 별 활동 상황들을 공유하고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가졌으며, 14일에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사례발표 시간

도 마련될 예정이다.

황 군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이신 지도자 여러분의 열정이 영호남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무주군도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의 장애인 인구는 2,473명으로 군청 청사와 공영주차장인 차림터에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민원인들의 취지에서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층 대회의실 구, 예체문화관 후문 계단을 보완해 경사로를 설치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활동보조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관 및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총 84억 8천 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민원인 전용주차장 조성

본청사 뒤편 주차공간 51면

완주군이 민원인들을 위한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완주군은 그간 군청 뒤편과 중앙도서관 앞·뒤편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일찍 출근한 군 청원들의 주차로 인해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의 온상이 돼 왔다.

특히 여름철이면 태양광 주차시설 주변은 물론, 의회 뒤편 주차장은 청원들의 양제 주차와 불법주차로 인해 혼잡을 야기시켜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완주군(군수 박

성일)이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운영을 강화하고, 고객에 편의시설을 우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길을 뚫아 들었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 종합민원과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가장 편리한 주차 이용 수요에 맞춰 본청사 뒤편 주차공간 51면을 내방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 집중 전용주차장으로 운영기로 했다.

좀더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실에서 제일 근접한 곳에 주차하려는 욕구에 응해 직원들은 일체 이용을 금하는 이용규정을 정하고, 내실있는 위민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공동창조공간 누에 오픈컨퍼런스' 내일 열려

(재)완주문화재단 G3아트플랫폼사업단은 오는 15일 완주 '공동창조공간 누에(nue)'에서 지역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동창조공간 누에(nue) 오픈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오픈컨퍼런스는 지역에서 집합시설로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6년간 활동이 정지되었던 공간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예술경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공동창조공간 누에(nue)'의 사업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써 전문가와 예술가, 지역주민, 행정기관이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진행될 '공동창조공간 누에(nue) 오픈컨퍼런스'는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방안 연구 ▲완주군 공동창조공간 누에 사업추진과정 ▲2차사업부지 계획실

계 진행과정 ▲문화재생산업 취지와 목표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G3아트플랫폼사업단 임승한 단장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광호 연구원, 바람부는 연구소 이광준 소장, 김미현 건축사, 문화컨텐츠연구소 박형용 연구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가게 될 예정이며 결과물은 이후 '공동창조공간 누에(nue)'의 운영에 반영될 계획이다.

임승한 단장은 "전문가와 예술가, 지역주민, 행정이라는 모든 문화예술 생산자들이 모여 폐산업시설 활용 문화재생산업의 운영과정을 함께 토론하고 공유를 통해 문화재생산업에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관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완주군은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 200여명과 소통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번 콘서트는 관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135팀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하는 하모니카와 오카리나 동아리인 '힐링맘&에코리나' 팀의 협주곡연과 구이 지역의 민요 동아리인 '모악소리' 팀의 공연 등이 진행돼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의 실력을 짙게 선보이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재갑 이사장은 "13개 읍면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호회원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행정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감회가 남다르다"며 "생활 속에서 즐기는 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해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생기는 일상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성일 완주군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심 역할을 해주는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발달로 우리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즐거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과 동호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의 문화 예술 나눔 활동을 주도해 모든 주민들과 함께 완주만의 문화예술 꽃을 활짝 피어나자"고 당부했다.

장수, LPG배관망 시범사업 확정

장수군이 군단위 LPG배관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확정됐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중심지역에 LPG저장시설 및 배관망을 구축, 지원함으로써 LPG유통구조 개선과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 공급을 통한 연료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총사업비 145억을 투자하여 장수읍 소재지권에 대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연료 사용 환경개선을 에너지복지 격차 완화와 주민의 가계부담 감소 등 서민층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계북 노인의 날 행사 '성황'

13일 계북면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참샘골 체육관에서 최영득 장수군수를 비롯해 각급기관단체 노인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한노인회 계북면 분회가 주관하고 계북면 새마을회·계북면 남녀 의용소방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계북읍수공품단, 반올림색소폰 공연, 참샘이 댄스 동아리 등 풍성한 식전 공연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2부 행사에서는 각설이 등 이벤트 공연단의 축하 공연이 열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기념 행사장에는 '행복장수 이동자원봉사의 날' 부대 행사를 마련하여 숙됨, 귀반사, 한방 의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피의자 입건 수사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비정상적 정산과 추진에 맞춰 임산물을 불법 채취 한 피의자를 입건 수사 중에 있다.

관리소측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갯, 송이 등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해 왔으며, 피의자 A씨 외 1명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에서 버섯을 채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 협약을 통해 임산물 양어 등을 하고 있다"면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 마을회관 방문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배포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 교통관리과는 12일 오후 관내 마을회관을 방문 가을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추수기인 가을을 맞이하여 농기계 사고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마을회관을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보행자가 지켜야 할 3원칙(보다, 서다, 걷다)내용이 담긴 전단지도 배포하고 노인 홍보물인 효자순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노인 등 보행자가 지켜야 할 보행안전수칙, 가을철 농기계 안전운행 요령, 야간보행시 밝은 옷 착용하기 등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윤종섭 서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농기계 및 노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농기계운행 관련 사고와 야간작업소순찰, 계도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관내 교통사고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